

2024-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

이은아 · 신경아**

| 목차 |

1. 탄핵 광장을 밝힌 청년 여성들
2. 이론적 논의: 아렌트와 버틀러의 '광장'과 '출현할 권리'
3. '안전한 광장'과 출현의 정치
4. 페미니스트 연대와 복수(複數)의 광장
5. 청년 여성의 주체화와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 초록 |

본 연구는 늘 광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이 2024년 비상계엄 이후, 어떻게 탄핵 광장의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출현했는지 그 조건과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언론 매체의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여 광장에 있었던 청년 여성들의 광장 경험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청년 여성들은 지난 10년간 구조적 불안정성과 젠더화된 폭력의 경험을 공유하며 일상에서 프레카리티를 체화하고 있었으며, 이는 광장 민주주의를 위한 출현의 조건이 되었다. 이들의 출현은 혐오와 배제의 광장을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으로 전환해내고, '광장식 자기소개', 즉 소수자 정체성의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특히 남태령 대첩은 청년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적 소수집단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끝나지 않는 복수의 광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2024-25년 탄핵 광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구조적 불안정과 프레카리티에 맞서 청년 여성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고,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로 출현했다는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euna1441@ewha.ac.kr

** 교신저자: 한림대학교 shina@hallym.ac.kr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탄핵 광장, 청년 여성, 프레카리티, 출현의 정치, 페미니즘

1. 탄핵 광장을 밝힌 청년 여성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충격과 분노, 공포에 휩싸인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한밤중 여의도로 모여든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을 향해가던 장갑차와 군인들을 막아섰고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거리에서 밤을 새웠다. 그때부터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때까지 4개월에 걸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대장정이 계속되었다. 이 긴 싸움은 ‘광장(공간)’에서 열렸고, ‘광장(정치적 공론장)’을 열었고, ‘광장(시민들의 연대)’을 구축했다. 여의도에서 남태령으로, 한강진으로, 그리고 광화문까지 서울 도심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수많은 민주주의의 ‘광장’이 펼쳐졌다.

광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고’ ‘만나고’ ‘말하고’ ‘듣는’ 수행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주체와 의미가 만들어지는 장이다. 한국 사회에서 ‘광장’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함께 정치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 들어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6-17년 박근혜 탄핵 집회가 광장을 열었고, 디지털 광장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광장 민주주의도 등장했다. 한편,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23년 이태원 참사 이후 광장은 추모와 기억의 공간이자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열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히 탄핵을 선고해 주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탄핵은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긴 싸움이 되었다. 2024년 겨울부터 2025

년 봄 사이 탄핵 광장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렸다. 시민들은 일상을 멈추고 주말은 물론 평일 퇴근 후에도 광장에 참여했다. 머지않아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리라는 예상은 자주 반복되었고 판결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쫄쫄 얼어붙었다.

한겨울 광장을 열정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물들인 이들은 바로 20-30대 청년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응원봉으로 광장의 어둠을 밝히고 K-POP 노래로 추위를 몰아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가장 돋보였고 주목 받았다. 수적으로 많았을 뿐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선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7일 서울 여의도 집회 참가자 중 20-30대 여성은 29.7%(20대 여성 18.9%, 30대 여성 10.8%)로 많았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 3-5%와 대조되었다.¹⁾ 이후에도 청년 여성들은 남태령 트랙터 행진, 한강진 밤샘 집회 등 곳곳의 광장을 주도해 갔다. 언론과 학계는 앞다투어 청년 여성들의 ‘출현’을 칭찬했고 청년 남성의 ‘부재’를 걱정했다.

청년 여성들은 ‘응원봉 시위’, ‘빛의 혁명’, ‘젊어진 광장’으로 호명되며 새로운 정치 주체로 주목받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미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럼에도 남성 정치인과 지식인 등이 주도했던 광장에서 여성의 참여는 예외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지만, 2024-25년 탄핵 광장은 청년 여성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고 광장의 정치를 주도해 간 집단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이혜정(2025)의 지적처럼 여성들이 처음 광장에 출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광장에서 상상하고 실천했던 민주주의가 이전과는 다른 감각과 감응을 불러 일으켰다는 데 있다(이혜정, 2025: 55).

2024-25년 청년 여성들은 왜 광장에 나왔는가? 응원봉을 들고 ‘다시 만

1) 이혜리. 2025.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의 광장에 보이지 않았을까.” <경향신문>. 2025.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40900031> [검색일: 2025.5.30.]

난 세계'를 부른 청년 여성들에게 광장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서 호명되고 제도 정치에서 배제되는 광장의 정치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본 연구는 광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이 탄핵 광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고 민주주의 광장을 만들어갔는지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다. 청년 여성들이 광장을 바꾸고 광장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출현하는지 분석하며, 그 '출현'의 과정과 의미를 페미니스트 정치로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선포 후, 청년 여성들은 어떤 정동적 경험을 통해 광장에 나왔는가? 둘째, 청년 여성들은 과거의 광장을 어떻게 기억하며, 그 기억은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실천을 구성하는가? 셋째, 청년 여성들은 광장의 시민들, 소수자들, 비주류의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응답하며 페미니스트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으로 나아갔는가?

본 연구는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민주주의 위기에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반추하며, 지금 이곳의 정치에 응답하는 정치적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한다. 그들의 광장 경험을 일회적인 사건이나 물리적 등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광장의 기억과 지금 여기의 정동이 결합된 연속적 정치 행위로 이해하며, 그들의 '출현'을 젠더 정치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탄핵 광장에 출현한 청년 여성들의 행위성과 주체성, 그리고 이들의 정동, 기억, 응답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정치적 실천을 만들어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나온 청년 여성²⁾들의 경험과 자기 서사를 중심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하였다. 특히

2) 언론에서 '청년 여성'은 주로 '2030 여성'과 같은 연령 범주로 표기되거나 혹은 스스로를 '청년 여성'으로 호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청년 여성'을 '2030 여성'이라는 연령 구분과 '청년 여성'이라는 자기 호명을 모두 포

불법 계엄 이후, 주요 언론은 광장에 나온 청년 여성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다수 보도하였는데, 이러한 자료는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2차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일간지에 실린 청년 여성 인터뷰 기사를 분석하였다. 2차 자료는 보도형 인터뷰 기사와 청년 여성이 직접 작성하거나 참여한 서사형·참여형 기사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자료 수집을 위해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청년 여성’, ‘탄핵’, ‘광장’을 주제로 주요 일간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으며,³⁾ 이 중 청년 여성의 발화나 경험이 담긴 인터뷰 기사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여성주의 성향의 언론(여성신문, 일다 등)과 진보적 독립언론(오마이뉴스, 플랫폼c 등)의 기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매체는 젠더와 광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며, 청년 여성의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다.

내러티브 분석은 시간과 구조(플롯)를 가진 이야기들을 역사와 담론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으로 청년 여성들이 광장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⁴⁾ 특히 이 연구는 한국 사회 광장의 역사와 그 속에서 청년 여성들이 형성해 온 행위의 계보를 배경으로 2024-25년 탄핵 광장에 나타난 청년 여성들의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메시지를

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두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3) 월별 기사 분포는 2024년 12월 21건, 2025년 1월 18건, 2월 16건, 3월 23건, 4월 13건, 5월 14건, 6월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별로는 경향신문(53건)과 한겨레(34건)가 전체의 약 73%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한국일보(6건), 중앙일보·아시아투데이(각 5건), 세계일보·조선일보(각 3건), 국민일보·서울일보·내일신문(각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언론에서 청년 여성 관련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 4) 내러티브 분석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story)’ 형식으로 구성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방법론으로, 화자의 경험과 이야기가 발화되고 들리는 사회적 맥락, 그 속에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신경아, 2018).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읽어내고자 하였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질적이면서도 공통된 정치적 감각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응원봉, 깃발, 퍼포먼스 등 상징적 실천을 담은 기록물들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2024-25년 탄핵 광장에 선 청년 여성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주체화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아렌트와 버틀러의 ‘광장’과 ‘출현할 권리’

여성주의 실천에서 ‘광장’이 갖는 의미는 공적 영역과 출현의 정치에 관한 페미니스트 이론으로 정립되어 왔다. ‘광장’에 주목하고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운동에 갖는 의미와 기여를 고민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있다. 아렌트는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부재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버틀러나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 등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민주주의적 통찰성과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토대로 한 아렌트의 광장과 주체화 이론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그의 이론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아렌트와 버틀러를 중심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실천의 공간으로서 광장의 의미와 정치적 주체화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를 살펴본다.

1) 공적 영역의 복수성과 출현할 권리

근대 시민혁명의 전리품으로 등장한 공적 영역은 부르주아 계급 남성에게 의해 점유된 공간이 되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은 이에

대한 이론적 해석으로 그것이 지닌 남성중심성의 오류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아렌트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인간이 지닌 차이와 그것이 드러나는 장소로서 공적 영역의 의미는 이후 페미니스트들의 연구에서 재해석되어 왔다.

아렌트의 이론에서 ‘공적 영역’의 의미는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곳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아렌트, 2019/1958).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고 동등하지 않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갖는다. 공적 영역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평등한 시민들이 함께 모여 말과 행위로 공동의 관심사를 소통하고 판단을 내리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은 사람들이 타인과 함께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구성된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말과 행위를 통해 구성해 가는 공간이다. 아렌트는 행위(action)를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일하고 고유한 활동이며, 공적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교제라고 정의했다(아렌트, 2019/1958). 그리고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아렌트에 따르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공적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행위가 ‘출현(appearance)’이다. 아렌트는 사람들이 함께 출현해서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창조하며, 모든 사람은 공적 영역에서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격, 즉 ‘출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적 영역이란 출현의 공간이며 출현을 통해 사람들은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인간 관계망은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결사체가 될 수도 있다. 이 관계망들의 세계가 바로 공적 영역이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서 출현을 통한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 획득 과정

을 ‘두 번째 탄생(the second birth)’이라고 불렀다(김민수, 2025: 41). 인간의 생물학적 탄생이 첫 번째 탄생이라면, 공적 영역에서 새로운 집단적 개별적 정체성의 획득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탄생(natality)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말과 행위를 통해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탄생은 정치적인 탄생이며,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실존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공병혜, 2017; 2019).

공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수성(plurality)이다(박병준, 2014; 김선욱, 2001). 인간은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차이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과 행위로 동등하게 관계 맺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정의했다(아렌트, 2019/1958).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며, 공적 영역은 의견을 표명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는 복수의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사실”과, 각자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일이야말로 사람들이 상호이해와 세계 이해를 이뤄내는 인식의 방법이자 인간적 세계를 구축하는 실천이라는 것이다(양창아, 2021: 221).

또한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공동의 탁자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탁자를 둘러싸고 앉은 사람들 사이에는 사이 공간(in-between)이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을 연결시키거나 분리시킨다. 그리고 이 사이 공간이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를 형성하며 다른 관점과 의견을 형성한다(김희정, 2008: 173-174). 그러므로 공적 영역에서 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듣는 행위를 포함한다. 비판적 거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음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의 확장, 즉 확장된 마음(the enlarged mind)을 갖게 된다(박은주, 2023).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의 차이와 세계의 실재성(reality)에 대한 인식을 획득한다.

공적 영역도 복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세계는 인종, 민족, 젠더, 계급

등 여러 가지 차이를 지닌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각기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과 지위, 경험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서 공적 영역은 헤게모니를 가진 다수 집단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배제되기 쉽다. 그러므로 차별받는 소수 집단에게는 대항적인 공적 영역이 필요하다. 낸시 프레이저는 하버마스의 단일한 공론장 개념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대항적 하부 공적 영역(subaltern counter-publics)’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김희정, 2008: 165; Fraser, 1999). 이를 아렌트의 논의와 연결해 보면, 아렌트는 복수의 공적 영역과 전체를 아우르는 공적 영역을 포함해 ‘공동 세계’라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또 아렌트의 공적 영역은 의견 형성 공적 영역(opinion-making public sphere)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비해 정책 결정 공적 영역(policy-making public sphere)은 국가로, 아이리스 영은 이 두 층위의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가 페미니스트 실천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Young, 2000).

2) 프레카리티(precaarity)와 관계성의 사유

공적 영역의 복수성과 출현 개념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킨 주디스 버틀러는 공적 영역에 출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수자들의 조건에 관심을 두었다. 버틀러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에는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인간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프레카리티(precaarity)’라고 정의되는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조현준, 2017: 368). 프레카리티란 특정 인구 집단이 사회경제적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되어 고통받고, 상해와 폭력·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며, 이런 상태에 놓인 인구 집단은 질병과 빈곤, 기근, 해고와 폭력의 위협에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되어 있다(Butler, 2009: 25).

버틀러는 ‘불안정성(precaariousness)’과 ‘프레카리티’를 구분하면서 전자

를 인간의 보편적인 존재론적 조건으로, 후자를 정치경제적 권력관계의 산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데, 이 같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은 인간을 취약하게 만든다. 버틀러는 이러한 실존적 취약성(existential vulnerability)이란 타인에게 노출되는 순간 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 조건의 취약성은 각 사회 내 인구 집단 사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정치사회적 권력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취약성은 달라지는데, 프레카리티란 이 같은 취약성의 차별적 분배구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프레카리티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메카니즘에 의해 출현한다. 이 같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가 ‘불안정화(precairization)’이다. 버틀러는 프레카리티는 “국가와 경제 제도에 의해 도입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Butler, 2011).

어느 누구도 사회의 실패 없이는 은신처의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사회체제나 정치경제의 실패가 없다면 실업으로 고통받을 이유도 없다. 인간 삶의 취약성은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정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실패와 불평등성에 원인이 있다(Butler, 2011).

버틀러는 프레카리티, 즉 사회적 불안정성이 정책의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해석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보수 정부 아래에서 이루어져 온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은 사람들의 삶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불안정성이 21세기 사회에서 훨씬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인구의 일부가 불필요한 노동력으로 지속적으로 해고되는 시대, 노동인구의 대체가능성(replacementability)과 처분가능성(disposability)을 높여가는 노동유연화 시대, 임시 노동이 확산되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이 구조적으로 침해받는 시기에 생계유지

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정치적 주장이 확산되는 모순”을 통찰하며 불평등의 심화를 비판한다(Butler, 2004; Butler, 2009; Butler, 2011). 버틀러의 이 같은 주장은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주변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해석이다. 그리고 “여성은 존재론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착종하여 나타난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위험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집단”이다(신경아, 2019: 187).

불안정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모이는 곳이 광장이다. 차별적으로 할당된 인간의 소모가능성 내지 폐기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리적·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공공 집회에 참여한다.

나는 신체들이 거리에, 광장에, 혹은 (가상공간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공적 공간에 모일 때, 그들이 복수적이고 수행적인 출현할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싶다. 이 출현할 권리는 신체를 정치의 장 한가운데로 내세우고 자리매김하며, 그 표현과 의미화 기능을 통해 더 이상 불안정성에 의해 야기된 조건들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는, 좀 더 살 만한(livable) 수준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조건들을 신체적인 차원에서 요구한다(버틀러, 2020: 20).

버틀러는 배제당한 자들의 출현 행위 모델을 젠더 관계에서 찾는다. 여성은 불평등한 젠더 규범과 젠더 관계에 의해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 왔지만, 바로 그 불안정성에 맞서는 수행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레카리티는 수행적 정치의 조건이 된다.

헤게모니적 담론 안에서 “주체”로서 출현하지 않고, 출현할 수도 없는 이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이에 대한 응수는 이 질문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 배제당한 이들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들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들은 어떤 관습을 통해 출현하는가? 그들은 당연시되는 논리구도를 통해 작동하는 지배 담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출현하는가? 비록 젠더가 인간의 규범적 구성에 저항하는 모든 존재를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기능할 수는 없지만, 젠더

는 우리에게 권력, 행위성, 저항에 대한 사유의 출발점을 제공해준다(버틀러, 2020: 57).

광장에서 소수집단의 출현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 프레카리티와 함께, 버틀러는 그들의 사유 양식으로서 ‘관계성의 사유’를 제시한다. 관계성의 사유란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사유이다. 인간은 모두 파괴에 취약한 몸으로 살고 있기에 서로에게 의존하며, 그러한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서로를 지켜나가야 한다. 버틀러는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거(unchosen cohabitation) 개념을 받아들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공거는 파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가 선택하지 않은 타자에게 묶여 있으며, ‘나’는 ‘우리’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우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복수의 존재들’이다(양창아, 2023: 147; 버틀러, 2020: 35). 서로 다른 우리가 소통하려면 자기중심성(solipsism)에서 벗어나 세계를 보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버틀러와 아렌트의 사유 개념은 이처럼 타자화된 인간 존재들을 향하는 관계성의 사유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사유는 복수성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되 복수성을 지속하는 사고이며, 타자와의 이질성을 사유함으로써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음으로써 사유를 지속하는 양식이다.

관계성의 사유가 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광장에서의 출현이다. 출현은 ‘이야기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진다. “차별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권리와 공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양창아, 2021: 230) 광장에 나선다. 버틀러에 따르면,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공적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규범, 사회적으로 존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규범이 지배적일 때, ‘도무지 산다고 할 수 없는 삶(unlivable

life)’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오히려 규범과 거리를 두고 그것과 비판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Butler & Worms, 2023; 양창아, 2021: 231). 또한 “이들이 박탈당한 자격은 ‘정치적 자유’와 직결되기에 공적 영역에 등장하는 것이 기존의 법적 테두리를 문제 삼는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양창아, 2021: 231). 그리고 공적 영역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 공적 영역에 나와 허락되지 않는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면서 바로 그 요구로 자신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임을 드러낼 때, 그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 속에서 공동체 내의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의미가 재고된다. 정치적 ‘새로움’은 바로 이런 순간에서 시작된다(버틀러, 2024; 권순정, 2013).

차별받는 집단도 ‘복수’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말하기의 두 번째 조건은 ‘복수성과의 연결’이다(양창아, 2021: 232). 삶을 지키기 위한 말하기일지라도 다른 차별을 낳는 동일화의 폭력이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 말하기는 또 다른 차별받는 집단과 사람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 특수성을 지닌 인종, 민족, 젠더, 계급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저항은 주변화된 존재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때만 또 다른 차별을 낳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성의 지속과 연대는 광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안전한 광장’과 출현의 정치

1) 청년 여성과 광장: 계보와 동학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다.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여학생과 여성 노동자들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다양한 이

름으로 광장에 나섰다. 2024-25년 탄핵 광장의 청년 여성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고, 광장을 지켜왔다. 민주화 이후, ‘촛불집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효순·미순 추모 집회에서였다. 교복을 입은 10대 여성들이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촛불소녀’로 명명되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광장에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처음 시작된 촛불집회는 10대 여학생들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심이 되었고,⁵⁾ 이후 10대부터 50대까지 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청년 여성들이 시위대의 주축이 되었고, 유아차를 끌고 온 여성들은 ‘유모차 부대’로 불렸다. 그러나 저항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모습은 의미 있는 기억으로 기록되지 못했다. 집회가 마무리되면 광장의 여성들은 ‘민중’과 ‘시민’이라는 이름 속에 묻혔고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처럼 청년 여성들은 늘 광장에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했음에도 예외적이거나 계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함께 청년 여성들은 또다시 광장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상의 불안과 구조적 폭력을 가시화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지 않았던 여성들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거리에 나와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분노하고 저항하였다. 그리고 ‘검은 시위’, ‘촛불집회’, ‘혜화역 시위’ 등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 형성된 페미니즘 담론은 거리와 광장의 저항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광장’은 청년 여성들이 광장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한 집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광장의 문화를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광장의 경험은 페미니스트 정치의 새로운 지형을 구

5) 임현지. 2008. “촛불 시위의 순수성(?)의 아이콘이 된 여성들.” 〈한국여성민우회〉. 2008.9.18. <https://womenlink.or.kr/archives/?bmode=view&idx=85744425&utm> [검색일: 2025.10.15.]

축하고, 광장의 정치적 동학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은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과 사회적 취약성, 즉 프레카리티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정동이자 정치적 언어가 되었다. 지난 10여 년간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로 보고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과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스토킹 살인, 뱃페이크, 교제 살인 등 ‘삶 자체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누적되었지만, 예방도 사후 대처에서도 국가는 무력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오며 청년 여성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법과 제도, 정치에 대해 관심을 확대해 왔다. 이는 여성들이 직면해 온 실존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확장되었다.

김보명(2018)은 ‘혐오’의 정동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의 재부상이 바로 “청년세대 여성들이 살아내는 위태롭고 불안한(precarius) 삶의 조건들을 반영”하며, “페미니즘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었고 말한다. 광장은 취약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여성주의의 의제를 만들어 가는 장이 되었으며, 시민권을 획득하고 수행하는 정치적 공간이 되었다. 뱃페이크·혐오폭력·국가의 무능·성차별 부정담론이 교차하는 프레카리티의 국면에서 청년 여성들은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공적 영역에 맞서 여성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듣고 토론하는 새로운 광장을 만들었다. 이는 버틀러가 말한 ‘버려지는 몸들의 연대’를 구체적 정치로 전환하는 현장이자, 취약성의 윤리를 프레카리티 정치로 바꾸어 가는 공간인 것이다. 그리고 2024-25년 청년 여성들이 만들어 간 탄핵 광장도 단순한 정권 교체 요구를 넘어, 프레카리티의 차별적 분배에 맞선 평등하고 안전한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향한 실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 속에서 청년 여성들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 주체로 다시금 ‘출현’했다.

2) 청년 여성과 프레카리티

청년 여성들은 왜 광장에 나왔는가?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폭력 앞에서 그것이 일상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 폭력임을 직감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며 성평등을 정치적 금기어로 만들고, 성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했다. 지난 3년간 청년 여성들은 불안과 무력감, 두려움을 느꼈다. 게다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목격한 이들은 국가가 ‘안전’을 방치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부정함으로써 불평등과 폭력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각하였다. 계엄에 대한 분노는 단순히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며, 이는 청년 여성들의 ‘출현의 조건’이 되었다.

청년 여성들은 공포와 분노를 느끼며 자신들의 상황 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공유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했다. 집회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들’, 즉 계엄의 폭력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광장에 나왔다. 이들이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집회에 참여한 한 인터뷰 참여자는 “이번 탄핵 광장에 여성이 많았던 이유가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집회에도 이삼십 대 여성이 많이 온 이유는 그동안 쌓인 울분이 터졌기 때문”,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는 평소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혐오범죄랄지 차별,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살해)와 같은 죽음이 내 일상에서 아주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긴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세대여서 그런지 그런 감각이 더하다.” (2024.12.20., 〈한겨레21〉, 서울 집회 참여자, 21세 여자 대학생)⁶⁷⁾

6) 오세진·손교운. 2025. “2024 탄핵 광장, 다양한 동료시민 목소리 쏟아져.” 〈한겨레21〉.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불법계엄 뿐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해 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공통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공적 영역에서 성평등 의제가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하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낙담하고 피로감을 느낀 페미니스트가 많았을 거예요. 여성 운동가로서 윤석열 당선 이후 그 영향을 많이 느꼈어요.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자 수가 줄어드는 게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 다들 피곤한가?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계엄 선포가 되어서 폭발적으로 여성들이 집회에 등장했죠. 그러니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광장에 쫓겨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고,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죠.” (2025.3.15., 〈일다〉, 비상행동 활동가 은사자)⁶⁾

그러나 이들에게 광장은 충분히 민주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았다. 한 사회에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는 광장에서도 드러나며, 때로는 그것을 재생산하기도 한다. 2016-17년 촛불집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혐오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하기도 했다. 언론은 당시 촛불집회를 “평화로운 분위기”라고 묘사했지만, 여성에게 광장은 민주적이지도 평등하지도 않았다.

2024.12.2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

[검색일: 2025.6.15.]

7) 본 연구는 광장의 경험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 참여자가 집회에 참여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집회 참여 지역을 함께 명시하였다.

8) 박주연. 200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광장은 모두에게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었으며, 누가 발언하는가 혹은 누가 침묵하는가는 광장의 위계와 권력을 드러낸다. 누가 광장의 승인을 받는가, 반대로 누가 보이지 않게 되는가. 이러한 승인과 배제의 정치 속에서 청년 여성을 포함한 많은 여성과 단체들은 2016년 촛불집회 당시 드러난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광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해일의 조개’처럼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된다. 더 나아가 보수기독교 세력, 남성중심적 정당과 정치세력, 주요 정부 관료들에게 여성과 성소수자의 요구는 ‘민주주의 문제’로, ‘정치적 문제’로도 입히지 못했다.

2024년 탄핵 광장에서도 청년 여성들은 혐오와 차별을 경험했다. ‘줄리계엄이다’처럼 김건희에 대한 성차별적인 발언과 혐오적 표현이 난무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광장에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20-30대 남성들에게 정보를 준다. 여자들이 집회 많이 나온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여성도, 탄핵 집회에 참여한 여성도 모두 ‘여성’으로 성적 대상화되며, 광장의 주체로 기대되지 않았다.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2008년 촛불소녀였던 여성들이 이제 2030 여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여성들은 광장의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한다.

“‘명박산성’이 설치된 2008년 광화문이 떠올랐다. 교복을 입고 나갔는데, 어른들이 “기특하다”고 했다. 칭찬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동등한 시민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껴서다. ‘촛불소녀’라고 명명된 우리는, 광장의 마스크트로 여겨질지 언정 주인이 되지는 못했다. 이제 ‘2030 여성’이 되었는데,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24.12.9., <경향신문>, 페미당당 활동가 심미섭⁹⁾)

탄핵 광장 초기에는 페미니스트들의 침묵도 강요되었다. “페미니스트

9) 심미섭. 2024. “촛불소녀’가 돌아왔다, 광장의 주인이 되려.” <경향신문>. 2024.12.9.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2037035> [검색일: 2025.6.10.]

는 말하지 말라”, “흐리지 말라”, “해일이 이는데 조개를 줍지 말라” 같은 표현들은 성평등 의제를 사소화하고 주변화한다. 서울여성회의 기자회견 영상에 달린 “여러분들의 주장을 윤석열 퇴진과 섞지 말라”는 댓글은, 광장과 공론장에서 젠더나 소수자 문제가 언제나 ‘대의’ 앞에서 덜 중요한 것 혹은 나중에 미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자유발언에 야유가 나오기도 했고, 소수자들의 발언이 ‘묻히지’ 않도록 통제되기도 했다. 여성들은 비상계엄 때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광장에 모인 많은 여성들을 보며 힘을 얻는 동시에, 광장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 특히 페미니스트에 대한 차가운 반응을 보면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험은 청년 여성들에게 페미니스트 의식이 단순한 정체성 표명이 아니라, 광장에 출현하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취약성의 표식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광장에 모인 시민이 백만 명이고, 시대정신이 같은 젊은 여자들이 모여 있으니 한국의 미래는 아직 젊으며 곧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국회 현장에서 마주한 면면의 젊은 여성 동지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집회 주최자가 성범죄 2차 가해자고, 집회 참여 가수가 혐영 가사를 쓴 사람이라는 걸 시위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고 절망했습니다. 7일 서울집회에서도 페미니스트 운동가분이 자유발언 하시려 무대에 올라왔을 때 주위의 반응이 냉담했던 것까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원하는 미래가 없구나, 여자는 여기서 또 지워지는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계엄령 상황을 TV로 지켜본 그 155분, 그리고 해제되는 새벽 4시까지 느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서브컬처에서 빠져나가는 (말도 안 되는) 손가락 논란에 정치권, 노동권 아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 인터넷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여성 범죄, 지지부진한 딥페이크 조사, 일상이 되어버린 화장실 몰카(불법촬영),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 여자란 이유로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계엄령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할 거란 공포였어요. 혼란스러웠고, 그럼에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2025.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2030 여성)¹⁰⁾

3) 평등 약속문과 ‘안전한 광장’

민주주의를 위한 광장조차도 오랫동안 남성의 공간으로 작동해 왔으며, 여성과 소수자는 ‘대의’를 위해 주변화되거나 침묵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는 탄핵 광장에서도 반복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페미X들 찾아 죽이지”는 댓글 테러가 이어졌고, 오프라인에서도 여성혐오와 성차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안적 민주주의 실천 공간으로서 광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청년 여성들은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았다.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은 광장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으며, 광장을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체가 되었다(이혜정, 2025).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퇴진 광장을 위한 ‘시민촛불’을 만들었다. 이어 2024년 12월 7일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 공개되었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24)(〈그림 1〉 참조).¹¹⁾ 이 약속문에는 ‘모두가 평등한 집회 참여’라는 광장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었으며, 성별·성적지향·성별정체성·장애·연령·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가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였다. 광장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를 광장의 주체로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대상화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약속문에는 그동안 광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시화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지 않고,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 및 젠더폭

10)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11)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12.9.

<https://women21.or.kr/notice/25793>. [검색일: 2025.10.15.]

력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 모두의 약속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청년 여성은 12월 7일 집회에 참여하면서 “집회 문화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여전히 페미니스트의 출현에 침묵과 야유를 보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며 그날을 기억했다. 그리고 시위의 주축임에도 여성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한다.

“12·7 국회 앞 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는데, 서로 질서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엄숙하고 한편으론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집회 문화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단상에서 발언하자 싸늘한 침묵과 야유를 보이는 시민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철도노조나 금속노조원분들이 발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를 크게 외쳤지만 제 주변에선 저 말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혼자 간 것도 아니었는데... 아 그리고 혹시라도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김민웅씨가 단상에 오르는 일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탄핵 시위의 주축인 여성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목소리가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며, 탄핵 및 국민의힘 당 해체, 그리고 내란 주도 세력들을 끌어내릴 때까지 여성으로써 목소리를 내겠습니다.”(2025.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2030 여성)¹²⁾

2024년 12월 11일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 1,500여 개가 함께 모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하였다. 「발족 선언문」은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는 발족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2024.12.11.). 이후 2024년 12월 13일 비상행동은 “우리 모두의 광장입

12)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니다”라는 제목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을 발표하였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24)(〈그림 2〉 참조).¹³⁾¹⁴⁾ 이 약속문은 ‘민주적인’ 가치와 지향을 포함하여 광장의 원칙을 한층 확장하였다. 약속문은 민주주의 광장의 원칙으로서 “광장의 주체가 바로 서로이며, ‘안전하고 평등하게’가 민주주의의 원칙”임을 명시하였다. 특히 민주주의 근본 원칙으로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차별 금지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할 원칙임을 선언하였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분명하게 호명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금지를 명확히 했으며, 이러한 호명은 그동안 광장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존재들의 ‘출현할 권리’를 선언함과 동시에 차별과 혐오 금지를 광장의 즉각적 실천으로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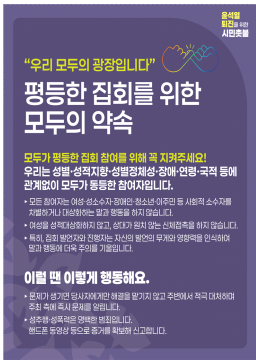
이처럼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금지를 연기될 수 없는 현재의 정치적 실천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선언문은 응원봉을 들고 광장을 가득 메운 청년 여성들의 요구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한 행동 지침은 모든 참여자가 연루되고 연결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약속문은 “참여자 중 누군가 야유, 욕설, 비하, 배제·차별·혐오 발언 및 행동을 할 경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목격자 또한 침묵하지 않고 행위 중단

13)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12.13.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검색일: 2025.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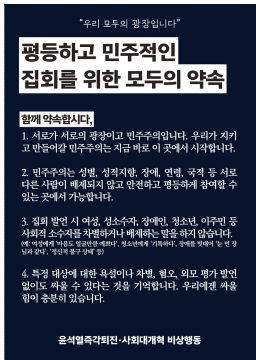
14) 2024년 12월 13일 비상행동은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을 열었는데, 서울(여의도), 경기(수원, 시흥, 양주, 오산, 광주, 하남), 제주, 광주, 경남(거제, 김해, 밀양, 진주, 창원, 통영, 함양, 함안), 대전, 강원(춘천, 속초, 철원), 충남(천안, 서산, 당진, 보령), 세종, 전남(고흥, 구례, 광양, 여수, 영암, 진도), 부산, 울산, 충북(청주, 대구, 경북(포항, 성주, 구미), 전북(전주, 남원, 익산, 고창, 순창, 진안)에서 광장이 열렸다(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내란범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12/3).” 2024. 12. 13. <https://kwwnet.org/recent/?q=YTox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Jit9&bmode=view&idx=133152952&t=board> [검색일: 2025.10.28,]).

을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그림 2〉 참조). 이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과 혐오 앞에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사회적 소수자들의 ‘출현할 권리’에 응답하고 책임지는 시민의 실천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은 단순한 명시적 선언을 넘어 서로의 존재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수행하는 정치적·실천적 과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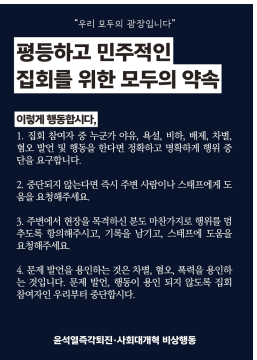
출처:
<https://women21.or.kr/notice/25793>

〈그림 1〉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12.7.,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민촛불)



출처:
<https://kwv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그림 2〉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2024.12.13.,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4) 페미니스트와 출현의 의미

평등 약속문을 만드는 과정에 페미니스트들이 있었다. 비상행동에 참여한 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박근혜 퇴진 촛불광장에서 페미니스트로서 느꼈던 답답함을 기억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활동가 역시 비상행동에 참여하면서 평등 약속문을 만드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고 했다. 이처럼 이전 광장의 경험과 계보 위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비상행동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등한 광장을 요구할 수 있었다.

“집회를 기획하는 회의, 구호를 정하고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 등 곳곳에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개입할 수 있다면 이전과 조금 다른 광장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비상행동 활동을 해오고 있다”, “물론 ‘평등약속문’이 있다고 해서 한 순간에 집회 현장이 평등해질 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주최 측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비상행동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있고, 집회할 때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이 약속문이 우리 집회의 가치이고, 공동의 감각이라는 걸 계속 전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존재하는데, 광장만 그런 게 없는 공간으로 만들 순 없다고 봐요. 다만 평등의 감각을 넓히고자 하는 거죠.”(2025.3.15., <일다>, 서울집회 참여자, 비상행동 활동가 은사자)¹⁵⁾

“‘평등 약속문’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소수자가 대상화되거나 그들에 대한 혐오발언이 나올 때, 김건희 씨에 대해 말하며 여성혐오적인 말들을 하는 문제 등을 어떻게 좀 정돈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무언가를 비판하면서 혐오표현이 나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다, 광장에 모인 모두와 함께 약속을 만들 수 없더라도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평등약속문’을 제안하게 됐죠.” (2025.3.15., <일다> 서울집회 참여자, 비상행동 활동가 여경)¹⁶⁾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서울에서 진행된 광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약속문이 광장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약속문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광장의 시민들에게 평등의 원칙을 상기시키려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러한 광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전과 평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참가자들의 요구가 모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5) 박주연. 202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16) 박주연. 202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준비단에서는 안전하고 평등한 집회를 만들기 위한 수칙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집회에서도 항상 시작할 때와 중간마다 화면으로 띄우는 등 노력했다.”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이 견인한 측면도 있다. 케이팝을 부르는 등 문화적 변화도 있었지만, 이 공간이 안전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회를 준비하는 측과 참가자 모두에게 있었고 맞아떨어졌다.” (2025.1.9., <NEWS&JOY>, 서울집회 참여자,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¹⁷⁾

약속문 하나로 광장이 저절로 평등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윤석열 퇴진을 우선시하며 다른 의제들을 엮지 말라는 목소리도 존재하며, 실제로 제시된 약속문에는 “시민 발언에 나와서 성정체성 얘기 듣고 싶지도 않음”¹⁸⁾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광장의 정치는 단일하지도, 평평하지도 않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들이 광장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혐오와 차별을 둘러싼 긴장과 충돌 속에서 ‘평등’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럼에도 약속문은 적어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광장’을 위한 공통의 원칙과 시민의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주의 광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청년 여성과 페미니스트, 사회적 소수자들은 평등하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한 자유발언자는 “살기 위해 존재를 숨겨야 했던 존재들이 살기 위해 광장에 나왔다”고 말한다. 청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이제 광장에 응답하고 광장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살기 위해 존재를 숨겨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살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2025.1.3. 저녁 8시 10분경 자유발언)(권창규, 2025: 632에서 재인용)

17) 나수진. 2025. “20대 여성이 주도한 탄핵집회, 20대 여성이 외면한 10·27 집회.” <NEWS&JOY>, 2025.1.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42> [검색일: 2025.6.15.]

18)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12.13.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검색일: 2025.10.15.]

청년 여성 또한 단일하거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프레카리티 경험은 이들을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라는 정치적 정체성으로 연결한다. <매일노동뉴스>는 광장에서 주목받은 2030 여성을 ‘미조직 여성노동자’로 규정하며, 이들의 경험을 분석한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대형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차별적인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이제 어디에서도 수용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광장을 지키기 위해 나온다고 말했다. 청년 여성들의 프레카리티는 새로운 정치적 출현과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조건인 것이다.

“광장으로 가는 길과 돌아오는 길, 응원봉을 들고 가다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낀다”, “우리 세대의 여성은 무엇을 주장했을 때 수용된 경험이 일터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없다”, “이번 광장에서 거의 처음으로 우리의 역할과 주체성을 인정받고 주목을 받고 있다”, “여성은 언제나 거리에 있었고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경찰의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2018년 해화역 집회 등에서 오히려 위협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았다”, “광장이 안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2030 여성이 다른 대상과 연대하는 감각을 얻었듯 다양한 의제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응답할 것으로 믿는다.” (2025.2.17., <매일노동뉴스>, 서울집회 참여자, 31세 여성 전 학원강사)¹⁹⁾

4. 페미니스트 연대와 복수(複數)의 광장

1) 소수자 정체성과 말하기-듣기

버틀러에게 ‘위태로운 삶’이란 “배제되고 버려진 존재를 단순히 기존의

19) 이 재. 2025. “광장 지키는 미조직 여성 ① 밀리고 밀려도 “안전한 광장을 위해 집회에 가요.” <매일노동뉴스>. 2025.2.1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65> [검색일: 2025.6.15.]

존재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의 차원에 반란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버틀러, 2018: 33). 지금까지 광장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시민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성적 지향, 장애, 직업, 가족관계 등을 드러내며 차이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광장의 다양한 얼굴과 이야기들은 존재의 불평등을 감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강진 집회에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는 참여자들이 유독 많았는데, 이들의 커밍아웃에 대해 불만도 없지 않았지만 광장에는 적어도 이들이 저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남 응, 2025: 314).

한편, 소속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광장식 자기소개’ 또는 ‘광장식 인사’는 기존의 ‘보편 시민’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실천은 광장에서 존재의 위기를 경험해 온 여성과 소수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반성하고 성찰하게 만들었다. 광장을 기록한 한 저자는 광장의 출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광장은 버틀러가 말한 ‘위태로운 삶’의 존재론적 반란의 장이자, 민주주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안 맞는다는 생각, 나와 다른 소리를 하면 아예 안보는 태도보다 ‘이야기를 섞어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광장으로 향했다”, “이번엔 (혐오 표현은) 광장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선이 생겼다”, “그게 페미니스트, 장애인,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더 명확하게 나오는 역할을 한 것 같다.”(2025.4.28., <경향신문>),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롤링다이스, 2025). 공동저자 엄지효)²⁰⁾

20) 오동욱, 2025. “‘화합은 원래 ‘얼룩덜룩한 풍경’...광장을 만들고, 지키고, 기록한 2030 여성 4인의 이야기.” <경향신문>. 2025.4.2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0600091> [검색일: 2025.6.20.]

“박근혜 퇴진 집회 때는 저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갖고 광장에 나간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12월14일 집회 때 제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깃발을 들고 국회 앞에 나왔어요. 불안하기도 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성소수자인 우리도 ‘시민’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촛불집회 이후 8년이 지났잖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페미니즘 백래시, 성소수자 혐오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나를 더 드러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2024.12.20., <한겨레21>, 서울집회 참여자, 30대 성소수자 남성)²¹⁾

광장의 자유 발언문을 분석한 유현미 외(2025)는 발화 양식이 “어디에 서 온 누구”를 넘어 비주류와 취약성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호명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30대 여성 페미니스트 참여자의 말처럼 “페미니스트”와 같은 “자신의 소수자성과 약자성을 밝히”는 말하기가 가능해진 조건이자 “안전과 평등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유현미 외, 2025: 170). 또한 자신의 소속이 아닌 발언자의 특성,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나 ‘성소수자’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광장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일종의 선언이기도 하다(이혜리, 2025: 87). 퀴어 정체성을 가진 한 서울집회 참여자는 광장에서 큰 안도감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여성이야말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존재입니다. 저만 해도 법적 지칭 성별은 여성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피메일바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있기도 해서 고 변희수 하사의 추모 행동에 종종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냥 퀴어 때 보던 사람들 다 모였더라고요. 저는 오타쿠 깃발 만들어 갔는데 원정 공연 때 뵈었던 동지분을 만나서 기쁘고 씩씩했습니다. (중략) 그래도 많은 여성들, 퀴어동지들을 광장에서 만나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민주주의

21) 오세진·손고운. 2024. “2024 탄핵 광장, 다양한 동료시민 목소리 쏟아져.” <한겨레21>. 2024. 12. 2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 [검색일: 2025.7.15.]

쟁취하고 행복한 퀴어로 늙어서 이 광경을 증언하고 싶어요.” (2024.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2030 여성)²²⁾

자신을 ‘고립·은둔 청년’이라고 밝힌 한 인터뷰 참여자는 광장이 “밀려난 사람들의 공간”이었으며, 그들로부터 “용기를 빌려” 광장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자들의 존재가 ‘나중’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이처럼 소수자 정체성의 말하기와 듣기는 자기 표현을 넘어, 다양한 차별과 혐오의 고통에 대한 고백이자 치유의 과정이며, 그리고 서로 다른 위치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다. 광장은 이러한 관계적 이해를 통해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사유하게 만드는 장이 된다.

“나란 사람이 사회에서 늘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하고 싶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전에도 늘 ‘덜 중요한 사람’과 ‘더 중요한 사람’ 간의 위계는 공고했다’, ‘광장에서 발언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긴 쉽지만 실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란 힘든 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라는 말로 선이 그어진다’, ‘배달 노동자, 이주 노동자, 성노동자의 발언도 터져 나왔지만 역시 ‘나중에’라는 말로 밀리고 있다... ‘나중에’에 밀려 누군가 더 죽어가기 전에 같이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2025.4.11., <경향신문>, 서울집회 참여자, 고립·은둔 청년 29세 여성)²³⁾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는 자신이 어떤 구조적 위치에 있으며, 한국 사회에 어떤 혐오와 차별이 있는지 드러낸다는 점에서 ‘위치성의

22)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23) 우혜림·박채연. 2025. “광장이 말했다 “고립·은둔 청년도 괜찮아”... “나중에” 가 없는 세상 바라.” <경향신문>. 2025.4.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10600021> [검색일: 2025.6.15.]

정치(politics of positionality)의 의미를 갖는다. ‘나는 여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특정 세대와 계층, 지역적 배경 등 다양한 곳에 있다’라는 구조적 위치를 드러내며 교차하는 타자들과 만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나’를 선언하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성이 권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황정미(2017: 45)의 지적처럼 “페미니스트 정치가 소수자의 정체성을 정치화하고 주류의 억압을 폭로하는 저항의 기획”이라면, 광장식 인사와 소수자 정체성의 출현은 곧 혐오와 차별에 대한 저항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2) 복수의 광장과 ‘다시 만난 세계’

2024년 12월 21일 밤, SNS 등을 통해 농민의 트랙터 행진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을 들은 청년 여성들과 시민들은 바로 남태령으로 향했다. 추운 겨울 밤을 함께 지새우기 위해 이들은 준비한 물품을 나누고, 캐롤을 개사한 ‘탄핵 가요’를 부르며 춤과 울동으로 몸을 녹였다. 청년 여성들에게 ‘응원봉 집회’는 사실 낯선 것이 아니다. ‘훤걸’의 집회 참여 경험을 분석한 정고은(2025: 119)은 “길바닥에서 지나간 시간을 견뎌내고, 소속사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근조화환과 트럭을 보내는 등 이 나눔과 저항의 양식에 수상하리만치 익숙한 ‘훤걸’들에게, ‘응원봉 집회’의 형식과 내용은 낯선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청년 여성들의 팬덤 문화가 보여준 선결제와 나눔 문화는 2024년 12월 21일 남태령에 다시 등장했다. 남태령 집회에 참석한 청년 여성은 12월 28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나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공동의 의지를 갖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는 트랙터가 통과하는 장면도 좋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저와 같은 시민들이 같이 핫팩을 나누고 음식 나누는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시위 나온 사람들을 절대 굶게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고요. 덕분에 하나도 춥거나 배고프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계속 눈물이 났어요.” (2024.12.28., <한겨레21>, 서울집회 참여자, 청년 여성)²⁴⁾

남태령 집회는 이전의 여의도 집회와 달리 서로 연결된 존재이자 지키는 존재로서 시민성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청년 여성들은 “교대할 사람들과 달라”는 트위터 글을 보고 남태령으로 향했고, 리트윗을 통해 동료 시민들을 조직했다. 남태령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지키는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청년 여성들은 남태령을 특히 이전의 집회와 다르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남태령 집회는 이제껏 참여한 그 어떤 집회보다 분위기가 좋았다. 배제되고 공격당할 것 같은 사람(트랙터 시위자들)의 편에 서기 위해 왔는데, 그 이유가 나도 이렇게 배제당하고 공격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농민들과 연결감·동질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남태령에서의 자유발언들은 대규모 여의도 집회의 발언과는 느낌이 달랐다. 수많은 대중 속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공간이었다.”(2025.3.25., <시사N>, 서울집회 참여자, 30대 여성)²⁵⁾

청년 여성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었지만, 광장 이후 제도 정치에서 그들은 쉽게 잊혀졌다.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자각하게 된 청년 여성들은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요구하며, “무력해지고 싶지 않아서”,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보여지지 않을까봐” 다시 광장으로 나아갔

24) 신다은. 2024. “10인10색 ‘남태령 대첩’ 출전 동기”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한겨레21>. 2024.12.2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32.html [검색일: 2025.9.15.]

25) 박성민. 2025. “우리 안의 모든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시사N>. 2025.3.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28> [검색일: 2025.7.15.]

다. 청년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광장은 탄핵과 정권 교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다. 광장은 지금까지 지워지고 고립된 파편화된 존재들과 연대할 방법을 모색하고, 끝나지 않는 복수의 광장으로 확장되는 곳이다. 2024년 12월 11일 부산 탄핵 집회에서 한 여성참여자는 광장 이후에도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테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2025.4.21., 〈FLAT〉, 부산집회 참여자, 20대 여성)²⁶⁾

남태령 광장 이후, 광장의 청년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든 연대가 필요한 곳에 존재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즉, 특정 의제나 정체성에 묶이지 않고, 시민으로서 ‘존재’하고 ‘연대’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갖게 된 것임을 기억하며, 부채감과 함께 민주주의 실천에 응답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그때, 그 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농민들은 시민들의 말을, 시민들은 농민들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몰라왔던 농민들의 아픔을 돌아보겠다는 외침에, 농민들은 동지라 불러도 되겠냐는 물음과 감동어린 눈물로 화답

26) 플랫폼. 2025. “‘매일 비상계엄같은 삶 사는 사람들 아직도...’ ‘술집 여자’ 시민의 호소.” 〈FLAT〉. 2025.4.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521001> [검색일: 2025.7.15.]

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여성들이 농촌에서 겪는 성차별을 소리높여 외쳤고, 청년 여성들은 연대를 약속하는 공감의 함성으로 화답했습니다. 전날까지도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였던 두 세계가 그날 밤 ‘다시 만난 세계’로 거듭났습니다.” (2025.2.9., <플랫폼.c>, 서울집회 참여자, 향연)²⁷⁾

3) 광장의 ‘결’과 페미니스트 시민되기

광장은 더 이상 특정한 의제나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새로운 실천과 행위들로 이어진다. 남태령 대첩 이후 이어진 다양한 연대의 실천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말벌 동지’들은 “정치적 진영이나 입장을 정한 후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하고 감응하는 사람들과 장소를 찾아가거나 거기에 물질적인 지원품을 보냄으로써 그 실천과 함께 하고, 그 신체적 실천을 통해 입장을 생성”하고 있다(이혜정, 2025: 76). 전태일의 의료센터 건립기금 기부자 중 2030 여성 기부자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²⁸⁾ 또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향한 연대 투쟁, 여성 해고 노동자를 위한 온라인 지지,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회원 증가 등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 집회에 참여한 한 20대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사회운동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농성장까지 가 보게 됐어요.” “집회를 다니며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내 얘기에 힘을 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무엇보다도 불의를 보면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탄핵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여러 시위에 최대한 참여해보자 싶어요. 지난 수년 간 해결 안 됐던 각자의 투쟁이 있었더라도요. 저 스스로 ‘내가 연대 활동을 길게 이어갈 수 있는 사

27) 향연. 2025. “남태령 투쟁을 겪으며 느꼈던 점 |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 <플랫폼.c>. 2025.2.9. <https://platformc.kr/2025/02/review-of-the-namtaeryeong-struggle> [검색일: 2025.5.15.]

28) 박소영. 2025. “‘남태령 대첩’ 2030 여성의 힘...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50억 채웠다.” <한국일보>. 2025.7.18. <https://www.hankookillbo.com/News/Read/A2025071813480005286?did=NA> [검색일: 2025.8.15.]

람이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2025.2.3., <오마이뉴스>, 서울·전장연 집회 참여자, 20대 고졸 생산직 여성)²⁹⁾

청년 여성들은 광장을 통해 다른 사회운동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도 하고, 다른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청년 여성들은 농민, 노동, 장애 등 여러 의제에 관심을 확장하며, 선결재나 물품 나눔을 넘어 ‘함께-존재하기’의 정치적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대학 내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며 대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적다고 느꼈지만, 탄핵 광장을 경험하며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탄핵이 부결되었지만, 그것보다 광장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여성들이 스스로를 정치적 주체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촛불집회에 다녀와서 앞으로의 사회를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2030 여성들이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외에도, 2030 여성과 기성세대 운동권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략) 민주노총과 2030 여성들은 분명 다르지만, 달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보여요. 여전히 성평등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함께 투쟁할 동지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4.12.13., <FLAT>, 서울집회 참여자, 여자 대학생)

청년 여성들과 소수자들은 스스로 출현하며 광장을 넘어 국가와 제도 정치에 대한 요구로 나아간다. 그리고 복수의 광장을 통해 새로운 제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며, 남성중심적인 시민사회의 전환과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광장은 모든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확장된다.

29) 최나현. 2025. “탄핵 집회 참가자가 전장연 시위에도 열심히 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5.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530 [검색일: 2025.6.15.]

“우리는 권력에 의해 주저앉혀지고 싶지 않아 투쟁합니다. 이견 당연하게도 파시즘을 앞세운 지도자를 거부하는 일과 같습니다.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끊임 없이 외면당한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결정 아래 배움터를 위협당하고 있는 여대 학생들, 자신을 입증할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자를 벌 받게 할 수도 없는 여성 폭력의 피해자들, 미미한 지원금만이 쥐어진 채 삶의 터전을 철거당한 용주골 사람들, (중략) 국제 사회의 외면 아래 학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죽어가고 있다고 항의조차 할 수 없는 모든 비인간과 생태계,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 타자화되고 비인간화된 채로 착취당하는 모든 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3.20., 〈한겨레〉, 서울집회 참여자·한강진역 발언자, 30세 익명의 청년)³⁰⁾

권창규(2025: 637)는 “정치 집회가 열리는 광장은 신념과 생각 이상으로 경험과 상상, 정동이 맞부딪히는 역동적인 현실 공간이자 가상의 공간”이라고 보았다. 차별과 혐오, 위계와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연대와 출현은 계속될 것이며, 수많은 광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엄기호는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2018)에서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으나 고통의 당사자가 고통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기 위해 당사자가 자신의 곁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그 곁을 지키는 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광장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곁’이자, ‘곁의 곁’이 되었다. 그리고 광장은 또 다른 ‘곁’으로 이어진다. 끝나지 않는 복수의 광장들, 그리고 평등을 향한 페미니스트 연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다시 만난 세계들’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30) 고나린. 2025. “기록하는 시민 ‘말빛이 꼽은 광장의 ‘빛나는 말들.’” 〈한겨레〉. 2025.3.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857.html [검색일: 2025.6.15.]

5. 청년 여성의 주체화와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 연구는 지금까지 늘 광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던 청년 여성들이 2024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면에서 어떻게 탄핵 광장의 정치적 주체로 출현했는지, 그 조건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여성들의 경험과 행위를 분석하고, 공적 영역으로서 ‘광장’과 소수자 정치로서 ‘출현’으로 개념화했다.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출현, 버틀러의 프래카리티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청년 여성의 출현이 일회적인 사건이나 우연이 아닌 실존적이고 수행적인 행위였음을 밝히고, 복수성의 정치를 통해 광장을 바꾸며 스스로 정치적 주체가 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이번 탄핵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 세력으로 출현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계기와 단계가 있다. 비상계엄 철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이르기까지, 여의도-남태령-한강진(한남동)-광화문으로 이어진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은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국면을 돌파해 나갔다. 광장이라면 깃발 들고 나서서 구호를 외치고 민중가요나 아침이슬 정도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던 기성세대에게 청년 여성들은 매우 다른 태도와 행동으로 광장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나갔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청년 여성들의 수적 참여와 적극성이다.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 여성들은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 수도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가시화되었다. 그들의 밝은 얼굴과 쾌활한 태도는 40-60대 중년층이 주를 이뤘던 탄핵 이전의 광장과는 다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탄핵 광장을 ‘빛의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응원봉은 광장의 풍경을 바꿔냈다. 2024년 12월 7일 비상계엄이 철회된 후 처음 열린 탄핵 결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뒤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부결되자 여의도 광장에는 분노와 실망감, 비통함이 몰아닥쳤다. 실망한 사람들이 눈물을 닦으며 광장을 떠나려 할 때, 어둠이

내린 겨울 저녁 청년 여성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꺼내 들었고 광장은 순식간에 불빛으로 빛났다. 청년들은 눈물 대신 응원봉을 들고 익숙한 K-POP을 부르며 광장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갔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들의 헌신과 분투 의지가 두드러졌다. 남태령 대첩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길이 기억될 한 장면이다.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들어서는 농민들을 경찰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막으려는 국가 권력에 맞서 청년 여성들이 농민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한 사건이다. 한국의 시민들에게는 몇 해 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생명을 잃은 경험이 있었기에 남태령의 밤은 고통과 불면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 12월 동짓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청년 여성들은 SNS에서 남태령 농민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읽은 후 발걸음을 돌렸고 남태령의 횡한 벌판에는 청년 여성들의 외침이 크게 울렸다. 이들의 외침을 듣고 정치인과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어 경찰이 퇴진한 다음 날 농민들은 무사히 남태령을 넘을 수 있었다. 자칫하면 공권력과 농민이 맞닥뜨려 인명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청년 여성들은 노래와 응원봉, 따뜻한 연설로 막아냈다. 이후 한강진에서는 급기야 키세스 군단까지 등장하며 눈 내리는 한 겨울의 한파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민주주의를 지켰다.

응원봉을 든 청년 여성들을 ‘응원봉 연대’라고 부르는 것은 광장의 주역들이 청년 여성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4개월에 걸친 탄핵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은 농민과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실업자, 학생, 성판매 여성,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광장에는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탄핵 광장에서 청년 여성들은 주목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사회적 소수자와 무권력자, 비주류의 존재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청년 여성들은 그들이 자신들이 연대해야 할 동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탄핵 광장은 청년 여성의 출현, 즉 광장에 선 다양한 집단들 앞에 청년 여성들 역시 ‘발견’된 공간이지만, 청년 여성들 역시 페미니스트로서 연

대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2024-25년 탄핵 광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의 장이 아니라 불안정성과 차별적 프레카리티에 맞서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장이었다. 청년 여성들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며, 광장의 민주주의와 시민 연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페미니스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들은 평등하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응답과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며, ‘페미니스트 시민되기’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해갈 수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요 언론 매체 인터뷰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서울집회 경험이 중심이 되었으며, 다양한 지역의 광장과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청년 여성과 광장을 프레카리티와 출현의 정치로 개념화하고, 불안정성에 저항하며 연대를 만들어가는 페미니스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권창규. 2025. “광장 정치의 역사 쓰기.” 『동학학회』 73: 623-653.
- 권순정. 2013.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통해서 본 ‘젠더.’” 『철학논총』 72: 215-240.
- 공병혜. 2017. “탄생철학과 아렌트의 시작의 의미.” 『철학탐구』 46: 95-127.
- _____. 2019.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과 21세기 생명정치.” 『범한철학』 95(4): 149-174.
- 김민수. 2025. “한나 아렌트의 ‘의식적 파리아’와 정체성의 정치.” 『문화와 정치』 12(1): 33-59.
- 김보명.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 사회』 118: 100-138.
- 김선욱. 2001.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67: 221-239.
- 김희정. 2008. “한나 아렌트의 공적 영역과 페미니즘.” 『사회과학논집』 39(1): 159-179.
- 남 응. 2025. “일상을 여는 투쟁.” 『황해문화』 126: 311-318.
- 박병준. 2014. “한나 아렌트의 인간관-[인간의 조건]에 대한 철학적 인간학적 탐구.” 『철학논집』 38: 9-38.
- 박은주. 2023. “한나 아렌트, 복수성(plurality)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연구』 45(3): 1-27.
- 버틀러, 주디스 지음, 김응산·양효실 옮김. 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서울: 창비.
- 신경아. 2018. “구술사의 이해와 연구 방법.” 한국문화사회학회(편). 『문화사회학의 관점으로 본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휴머니스트. 256-285.
- _____. 2019. “노동의 불안정성과 젠더: 시론적 접근.” 『페미니즘 연구』 19(1): 173-206.
- 아렌트, 한나. 2019. 『인간의 조건』. 이진우(역). 파주: 한길사. (Arendt, Hanna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엄기호. 2018.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서울: 나무연필.
- 양창아. 2021. “말하기와 ‘듣기’에 관한 사회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104: 215-233.
- 양창아. 2023. “관계성의 사유: 한나 아렌트와 주디스 버틀러의 사유 개념.” 『철학논총』 114(4): 139-162.
- 유현미·김이선·김정환·장진범·박상은. 2025. “광장에서 만난 세계: 윤석열 퇴진

- 집회 시민발언문 분석.” 『경제와 사회』 146: 153-193.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2024.12.11.
- 이혜리. 2025. “응원봉-남태령-키세스’ 2030 여성들의 탄핵연대.” 『철학과 현실』 144: 82-93.
- 이혜정. 2025. “응원봉 여성 청년의 민주주의와 학교교육.” 『교육비평』 57: 54-99.
- 조현준. 2017. “한나 아렌트의 비선택적 공기와 주디스 버틀리의 프레카리티 정치학: 몸의 정치학과 윤리적 의무.” 『비교문화연구』 48: 361-389.
- 정고은. 2025. “헨겔과 말갈: 초대장에 응답 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121: 116-132.
- 황정미. 2017.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114: 17-51.

(2) 국외문헌

- Butler, Judith. 2004. *Precarious Life*. London: Verso.
- _____. 2009. *Frames of War*. London: Verso.
- _____. 2011. “For and Against Precarity.” *Tidal: Occupy Theory, Occupy Strategy* 1: 12-13.
- Butler, Judith & Frédéric Worms, 2023. *The Livable and the Unlivable*.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 1999.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Habermas and Public Sphere*, ed. by Calhoun, Craig.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MIT PRESS.
- Young, Iris Marion.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 신문기사

- 고나린. 2025. “기록하는 시민 ‘말빛’이 꼽은 광장의 ‘빛나는 말’들.” 〈한겨레〉. 2025.3.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7857.html
[검색일: 2025.6.15.]
- 나수진. 2025. “20대 여성이 주도한 탄핵집회, 20대 여성이 외면한 10·27 집회” (NEWS&JOY).
2025.1.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942>
[검색일: 2025.6.15.]
- 박성민. 2025. “우리 안의 모든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시사N〉. 2025.3.2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28> [검색일: 2025.7.15.]
- 박소영. 2025. “‘남태령 대첩’ 2030 여성의 힘”...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50억 채

- 왔다.” 〈한국일보〉. 2025.7.1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813480005286?did=NA> [검색일: 2025.8.15.]
- 박주연. 2005. “평등한 광장을 만드는 페미니스트, 여기 있다.” 〈일다〉. 2025.3.15. <https://www.ildaro.com/10137> [검색일: 2025.5.15.]
- 신다운. 2024. “10인10색 ‘남태령 대첩 출전 동기’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계속 눈물이 났어요.” 〈한겨레21〉. 2024.12.28.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632.html [검색일: 2025.9.15.]
- 심미섭. 2024. “촛불소녀가 돌아왔다, 광장의 주인이 되려.” 〈경향신문〉. 2024.12.9.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92037035> [검색일: 2025.6.10.]
- 오동욱. 2025. “‘화합은 원래 ‘얼룩덜룩한 풍경’...광장을 만들고, 지키고, 기록한 2030 여성 4인의 이야기.” 〈경향신문〉. 2025.4.28.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80600091> [검색일: 2025.6.20.]
- 오세진 · 손고은. 2024. “2024 탄핵 광장, 다양한 동료시민 목소리 쏟아져.” 〈한겨레21〉. 2024.12.20.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591.html [검색일: 2025.7.15.]
- 우혜림 · 박채연. 2025. “광장이 말했다 “고립 · 은둔 청년도 괜찮아”...“나중에는 없는 세상 바라.” 〈경향신문〉. 2025.4.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10600021> [검색일: 2025.6.15.]
- 이아름. 2024. “내 생애 계엄이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응원봉과 2030 여성 ‘탄핵 집회 나온 이유.’” 〈FLAT〉. 2024.12.13.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534001> [검색일: 2025.7.10.]
- 이 재. 2025. “광장 지키는 미조직 여성 ① 밀리고 밀려도 “안전한 광장을 위해 집회에 가요.”” 〈매일노동뉴스〉. 2025.2.1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65> [검색일: 2025.6.15.]
- 이혜리. 2025. “2030 남성, 그들은 왜 탄핵의 광장에 보이지 않았을까.” 〈경향신문〉. 2025.1.4.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40900031> [검색일: 2025.5.30.]
- 임현지. 2008. “촛불 시위의 순수성(?)의 아이콘이 된 여성들.” 〈한국여성민우회〉. 2008.9.18. <https://womenlink.or.kr/archives/?bmode=view&idx=85744425&utm> [검색일: 2025.10.15.]
- 최나현. 2025. “탄핵 집회 참가자가 전장연 시위에도 열심히 가는 이유.” 〈오마이뉴스〉. 2025.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530 [검색일: 2025.6.15.]

- 플랫폼. 2025. ““매일 비상계엄같은 삶 사는 사람들 아직도...” ‘술집 여자’ 시민의 호소.” <FLAT>. 2025. 4. 2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1521001> [검색일: 2025. 7. 15.]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12. 13. <https://kwwnet.org/recent/?bmode=view&idx=133155104&utm> [검색일: 2025. 9. 15.]
-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내란법 윤석열 탄핵 전국 긴급행동(12/3).” <한국여성노동자회>. 2024. 12. 13. <https://kwwnet.org/recent/?q=YToxOntzOjEyOjRlZl3b3JkX3R5cGUiO3M6MzoiYWxsJjt9&bmode=view&idx=133152952&t=board> [검색일: 2025. 10. 28.]
-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 “모두의 인권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 <한국여성단체연합>. 2024. 12. 9. <https://women21.or.kr/notice/25793>. [검색일: 2025. 10. 15.]
- 향연. 2025. “남태령 투쟁을 겪으며 느꼈던 점 |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넓히는 사람들.” <플랫폼.c>. 2025. 2. 9. <https://platformc.kr/2025/02/review-of-the-namtaeryeong-struggle> [검색일: 2025. 5. 15.]

Abstract

Young Women in the 2024–25 Square for Impeachment – Precarity and the Politics of Appearance

Lee, Euna
(Ewha Womans University)

Shin, Kyung-ah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young women, who had always been present in the square but remained invisible, emerged as new political subjects in the impeachment square following the 2024 martial law crisis, and to clarify the conditions and meanings of this appearance. Using media interview materials, the study analyzed the square experiences of young women. Young women have embodied precarity in their everyday lives, sharing over the past decade experiences of structural insecurity and gender-violence, which became the condition of their emergence for democracy. Their appearance also transformed the square from a space of exclusion and hierarchy into a more equal and democratic arena, realizing square democracy through the practice of “square-style self-introduction,” that is, speaking and listening to minority identities. In particular, the Namtaeryeong confrontation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with diverse marginalized groups and to generate multiple squares that continued beyond the immediate moment. The 2024-25 impeachment square, therefore, was not simply a site of regime change, but a square in which young women, confronting structural insecurity and precarity, created a new democratic square and emerged as political subjects through solidarity with other minority groups.

Key words: square for impeachment, young women, precarity,
politics of appearance, feminism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6일